

No.20150204-001

제목: 절창(絶唱) – 빼어난 시가 (詩歌)

저자: 미나토 가나에

페이지수: 249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1월 22일



<내용소개>

‘죽음’에 상처받은 여성들이 보여주는 상실과 재생 그리고 그녀들의 인생 이야기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소리 높여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뒤에서 쓰디 쓴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의 수만큼이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남기고 간 상처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것만은 모두에게 같다. 동시에 그런 절망적인 상실감도 언젠가는 잊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작품은 수 천명의 사상자를 냈던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그 때 당시 입은 상처로 저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연작 단편집이다. 소설 안의 주인공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거리의 모습뿐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루하루 자신을 쪼먹는 기분을 견디지 못한 주인공들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떠나게 된다. 지진 당시 사랑했던 이가 죽은 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 지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온 어느 작은 섬에서 그녀들은 뜻밖의 만남을 겪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실감을 서서히 치유해가기 시작한다.

중학교 선생인 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죽인 중학생들을 계획적으로 죽이면서 가혹한 복수를 해가는 내용을 다룬 소설 ‘고백’으로 잘 알려진 미나토 카나에의 신작 ‘절창(絶唱)’은 그녀가 보여줬던 흡입력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죽은 희생자의 가족과 그 주변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얼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주인공들이 상실감을 치유하게 되는 낙원으로 묘사되는 섬 ‘통가’는 실제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으로 된 왕국이다. 작가는 실제로 이 섬에서 지냈던 경험을 살려 섬의 풍경을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잘 묘사했는데, 이 점 또한 이 소설에서 눈 여겨 볼 만한 점이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찾아온 이별의 상처를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실감에 짓눌려 점점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줄 것이다.

<목차소개>

낙원 / 약속 / 태양 / 절창(絶唱)

<저자소개>

미나토 카나에

일본 히로시마현 출생. 2007 년 '성직자'로 제 29 회 추리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했다. 주요 작품으로 '고백' 등이 있다.

No.20150204-002

제목: 점장이 가득!

저자: 야마모토 유키히사

페이지수: 316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11월 14일



<내용소개>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인생이라도 계속 살다 보면 희망찬 내일이 찾아온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실패의 눈물을 삼키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거나 어느 날 자식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이혼이나 정리하고 등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실패와 좌절로 끌여가기 위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함정들로 가득하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생의 큰 걸림돌인 파산이나 이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7명의 체인 뽕밥집 점장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고리대출로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든 점장, 어제 이혼 통보를 받은 점장 그리고 툭하면 손님과 싸우는 골칫덩어리 직원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점장 등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점장들의 분투기를 그리고 있다.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거운 편이어서 자칫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작가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소설 속에 등장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싸구려 뽕밥집을 백 개가 넘는 체인점을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낸 여사장과 우유부단하고 병약한 그녀의 아들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미인이지만 주변에 적으로 가득한 미모의 여사원 등 이야기 중간중간 무거운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주면서 소설을 읽는 재미까지 더하고 있다.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 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물론 노력과 타고난 운으로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좌절감을 맛 볼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7명의 점장이 만들어 내는 뽕밥의 맛은 입안에서는 비슷할지 모른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 각자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그들의 인생의 감칠맛은 다른 뽕밥에서는 맛 볼 수 없는 숨겨진 조미료가 되어 줄 것이다.

실패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비록 지금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주저 앉고 싶겠지만 참고 견디면서 한 발짝씩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처

지를 불행히 여기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한 그릇의 따뜻한 덮밥을 선사해줄 것이다.

<목차소개>

소나무를 꾸미다 / 눈에서 춤추다 / 등에 말하다 / 외톨이인 둘 / 꿈에서 깬 꿈 / 에노시마가 오른손에 / 다가 붙어서 웃다

<저자소개>

야마모토 유키히사

1966 년 일본 도쿄 출생. 츄오대학을 졸업한 후 편집 프로덕션 근무를 거쳐 2003 년 '미소 짓는 복 고양이'로 제 16 회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주요 작품으로 '사랑은 서툴러' 등이 있다.

No.20150204-003

제목: Dormitory 토모킨스

저자: 타카노 후미코

페이지수: 126

장르: 교양과학 / 코믹 에세이

출간일: 2014년 9월 24일



<내용소개>

20세기에 활약한 4명의 일본 과학자들이 남긴 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

매년 연말이면 그 해 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의 주인공이 발표된다. 노벨상은 그 분야가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 과학, 의학 그리고 평화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성과를 아우르는 상이다. 노벨상은 다른 상과는 달리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인종과 문화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거나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과학자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에 그칠 뿐 정작 그들이 이룬 과학적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룬 업적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다다를 수 있었던 지식의 경지를 단 한 순간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일 것이다.

이 책은 기초과학에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온 일본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2명의 과학자와 일본 국내에서 자신의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2명의 과학자, 총 4명의 과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통 과학자들을 다룬 책에서는 흔히 그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조금 다른 방향을 택했다. 4명의 과학자들이 같은 기숙사 안에 살고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저자를 그 기숙사의 사감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기숙사 안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딱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저자가 과학자들을 이렇게 표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남긴 '또 다른 작품'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이론서 말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방식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수필'을 남긴 사람들이다. 물론 이것도 바로 이해하기 쉽고 고는 말할 수 없기에 이 책의 저자는 만화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군데군데 보이는 과학적 지식과 각 장의 마무리에는 과학자들이 남긴 수필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몰랐던 과학자들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수 많은 나라를 제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노벨 과학상을 받은 이가 없다. 그 원인을 기초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성과 효율만을 쫓아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고질병을 없애고 다른 관점으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본문이미지>



「雪を挿した蛇」 「イダアノドン」の頃——大人のための電話——

『中谷宇吉郎随筆集』(中谷宇吉郎 著、樋口敬二 編、岩波文庫) 所収

「雪は天から送られた手紙である」の言葉で知られる物理学者・中谷宇吉郎は、その生涯を雪と氷の研究に捧げた。時に明治末期、中谷の暮らす北陸の小さな町にも電報がようやくつくられた。科学というものはまだまだ縁遠い土地だった。学校裏の風鈴には雪を挿した蛇が棲んでいた。しかし中谷は、幼き日に「非科学的なもの」——伝説や迷信、おとぎ話など——に囲まれて暮らしていたからこそ、「平凡な世界の中に不思議を感じる」ことができ、自然に対してより深い探究の念を持てたのではないかと語っている。そして、それこそが自身の科学の自励とな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

とも子さんが紹介した二編の随筆のうち「雪を挿した蛇」は中谷の小学校時代の思い出が綴られたものである。時は明治末期、中谷の暮らす北陸の小さな町にも電報がようやくつくられた。科学というものはまだまだ縁遠い土地だった。学校裏の風鈴には雪を挿した蛇が棲んでいた。しかし中谷は、幼き日に「非科学的なもの」——伝説や迷信、おとぎ話など——に囲まれて暮らしていたからこそ、「平凡な世界の中に不思議を感じる」ことができ、自然に対してより深い探究の念を持てたのではないかと語っている。そして、それこそが自身の科学の自励とな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

<목차소개>

제1장: 토모나가 군 - 우동이에요

'거울 속의 물리학'을 읽고 나서

(토모나가 신이치로, 물리학자.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06 ~ 1979])

제2장: 토모나카 군 - 울지마요

'滯獨일기'를 읽고 나서

제3장: 마키노 군 - 새해입니다

'송, 죽, 매'를 읽고 나서

(마키노 도미타로, 식물학자 [1862 ~ 1957])

제4장: 나카야 군 - 편지입니다

'비녀를 꽂은 무지개'를 읽고 나서

(나카야 우키치로, 물리학자 [1900 ~ 1962])

제5장: 나카야 군 - 코타츠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제6장: 마키노 군 - 나비입니다

(어째는 꽃에서는 향기가 나는가?)를 읽고 나서

제7장: 유카와 군 - 콩이에요

'숫자와 도형의 수수께끼'를 읽고 나서

(유카와 히데키, 이론 물리학자. 194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07 ~ 1981])

제8장: 유카와 군 - 술방울이에요

'유카와 히데키의 물리강의를 읽다'를 읽고 나서

제9장: 유카와 군 - 비옷이에요

'자연과 인간'을 읽고 나서

제10장: 가모프 씨 - 어서오세요

'조지 가모프 컬렉션 그 첫 번째, 톰킨스의 모험'을 읽고 나서

(조지 가모프, 러시아 태생의 미국 이론물리학자 [1904 ~ 1968])

제11장: 시 낭독

유카와 히데키 저 - '어린이들을 위한 시와 과학'을 읽고 나서

<저자소개>

타카노 후미코

1957 년 일본 니이카타현 출생.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1979 년 상업지 작가로 문단에 데뷔했다.
1982 년 일본 만화가 협회 우수상과 2003 년 테즈카 오사무 만화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노란 책' 등이 있다.

No.20150204-004

제목: 금융정책의 죽음 - 금리로 보는 세계와 일본의 경제

저자: 노구치 유키오

페이지수: 272

장르: 경제

출간일: 2014년 12월 20일



<내용소개>

경제를 이해하는데 최적의 도구인 금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불황을 이겨낼 방법을 제시하다

최근 전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유가하락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경제 시스템은 유가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계속되는 휘발유 값 인하라는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금리(金利)이다.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 흔히 듣게 되는 이자와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이자가 추상적인 개념인 데 비해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라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사용료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즉 금리란 돈을 빌리고 갚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금리야말로 지금 경제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금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1990년 이후 미국을 주도로 한 선진국들이 행한 금리인하에 대한 것이다. 이 현상을 단지 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저자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 빠른 속도로 산업화 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인하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감소되었다.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금리인하 정책을 계속 고수 했는데, 금리의 인하가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값싼 공산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선진국들의 잠재적인 경제성장이 낮아져서 실질금리가 인하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사뭇 흥미롭다.

이 책은 우리들이 평소 깊게 알지 못했던 금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금리

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와 그 흐름 속에서 일본경제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충실하게 실려있어서 일본 경제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어쩌서 금리를 문제로 삼는가

제1부: 금리는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

(금리는 지금과는 다른 시간 사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격 / 금리에 관한 재정식[裁定式] 등)

제2부: 금리인하가 세계경제를 변화시켰다

(1990년대 이후 실시 된 금리인하 / 세계적 규모의 금융완화정책으로 거품경제가 발생하다 등)

마지막 장: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한계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저자소개>

노구치 유키오

1940 년 일본 도쿄 출생. 1963 년 도쿄대학 공학부 졸업 후 히토츠바시 대학, 도쿄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11 년 4 월부터 와세다대학 파이낸스 종합연구소의 고문 및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정보의 경제이론' 등이 있다.

No.20150204-005

제목: 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 사회학

저자: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페이지수: 262

장르: 사회학 / 인문 / 교양

출간일: 2014년 11월 19일



<내용소개>

가족, 결혼 그리고 행복 등 '사회'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기 위한 학문은 인간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 인간의 존재 그리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있었고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바닥으로 향하는 중력이라는 자연현상의 법칙을 알아내기 위한 자연과학 등,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학문은 그 종류와 깊이가 남다르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집단현상인 '사회'에 대한 의미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회학'이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회학이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념, 예를 들어 자본주의 라든지 종교나 법 같은 것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 보이는 행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자에 따라 각자 중요시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데 자본주의나 법 그리고 직업같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제도에 집중하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전쟁, 결혼, 가족, 행복 같은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회학적 개념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장 친숙한 예를 하나 들자면,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가족'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저 말이나 글로 사용할 뿐이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저자는 가족이란 사회를 이룬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비슷한 무리가 모여있는 단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저자는 자기 무리의 구성원에게나 무리 이외의 존재에게나 같은 행동을 보이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서로 다른 점을 들고 있다.

저자는 '사회학'이라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는 학문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16가지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마치 대학교 전공 서적처럼 유명한 사회학자가 줄지어 나오고 그들이 말한 아리송한 이론을 소개

하는 방법보다는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경제학, 철학, 역사학의 지식이 한데 어우러진 사회학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우는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학문이다. 다른 학문이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면 사회학은 그 나무를 포함한 숲 전체를 파악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런 어려운 사회학 참고서를 마치 하나의 에세이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다. 평소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채우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만 하다.

<목차소개>

Part 1

(언어: 언어를 쓰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 전쟁: 전쟁은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등)

Part 2

(결혼: 결혼은 전 세계, 어떤 민족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습관입니다 / 자유: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 입니다 등)

Part 3

(종교: 종교는 인류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니 인류문화의 중심입니다 / 행복: 행복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등)

<저자소개>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1948 년 일본 카나가와현 출생. 대학 졸업 후 집필활동을 거쳐 2013 년까지 도쿄공업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언어 게임과 사회이론' 등이 있다.

No.20150204-006

제목: 마음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잡균주의'

저자: 사이토 타카시

페이지수: 207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09년 5월 15일



<내용소개>

마음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별 볼일 없이 여겼던 잡균의 정신력에서 배우다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던 80년대 같은 상황이 오기 힘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국가에서는 경제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실업률 감소는커녕 기본적인 생활수준조차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이룬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 간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당분간 이런 상태는 지속될 것이고 사람들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균주의(雑菌主義)'이다. '잡균'이라는 단어는 청결함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 물론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해로운 균은 없어야 좋지만 지나치게 청결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우리 몸에는 잡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체계가 있다. 하지만 만약 주기적으로 침입했던 잡균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면역체계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할 일이 없어진 면역체계는 그 힘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평소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던 잡균이 큰 병으로 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런 면역체계에 대한 문제를 몸에서 우리들의 정신으로 대체해 설명하고 있다. 즉 잡균처럼 여겨졌던 사소한 것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간 사람은 나중에 닥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청결함을 잠시 내려놓은 '잡균주의'의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있다.

청결함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에는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있다. 자신과 다른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생각도 물론 좋지 않지만 다른 것도 부딪히고 상처 입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애당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함께 어울

려 사는 구조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신의 마음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고마운 '잡균'으로 여기고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할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애태우는 마음에 면역력을 - '잡균주의' 선언!

(잃어버린 잡균환경 / 겐지스 강의 축복 등)

제2장: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프로세스

(강한 면역력은 인기인의 원천 / 비즈니스 페로몬 이라는 이름의 무기 등)

제3장: 청결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

(알레르기가 늘어난 이유 / 도를 넘은 청결상태 등)

제4장: 어째서 당신은 지적 받는 것이 약한가

(디즈니랜드는 과연 현실인가? / 고지식한 신앙과 성숙 등)

제5장: 지면서 이긴다 - 터프하게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

(필요한 인재는 체력이 좋은 사람 /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수정과 적응으로 가는 기본 자세 등)

제6장: 잡균주의자의 열 가지 선서

<저자소개>

사이토 타카시

1960 년 일본 시즈오카현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도시샤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No.20150204-007

제목: 절대로 암과 싸우지 마라!

저자: 콘도 마코토

페이지수: 349

장르: 건강

출간일: 2015년 1월 5일



<내용소개>

암 전문의가 고발하는 현대 암 치료의 잘못된 상식 그리고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아프지 않으면서 건강한 삶을 보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25세가 넘어가면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는데 아무리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도 몸은 점점 질병에 걸리기 쉽게 늙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걸리기 쉬운 이 병 때문에 점점 자신의 몸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직 내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무제한 증식하는 세포로 구성된 종양인 암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를 칠만큼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몸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고 완전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 할뿐더러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발병하는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삶의 의욕을 잃는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 같은 암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암에 대한 상식을 버리고 암과 싸우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암 전문의로 지내면서 암 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온 저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여, 암과 싸우지 마라'라는 책을 내놓는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있던 암 치료의 90%가 전혀 쓸모 없을뿐더러 그런 것이 전부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는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일본 전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저자 자신은 주변 의사와 직장에서 완벽히 고립된 생활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깨어있는 의사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방암에 걸리면 무조건 절제수술을 해야 했던 과거 암 치료의 상식을 무절제 수술로 바꾸어 준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키쿠치 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그 동안 저자가 주장해온 암과 싸우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과거 일본 암 의료계의 그늘을 낱알이 고발하고 있다. 과거 실제로 암 수술 후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남은 유족들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옛날에 일본 의료계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암은 몸에서 사라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수술이나 고통스런 항암치료를 견뎌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려주는 이 책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나는 어쩌서 암 전문의가 되었는가

제1장: '신의 손'을 고발한다! - 철저해부 어느 유명 아나운서의 암 수술

제2장: 아나운서가 죽은 후 3년 - 남편의 목숨을 단축시킨 수술의 의미가 알고 싶다!

제3장: 콘도 선생님 정말로 암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암 전문의들이여 진실을 말하라

제4장: 모든 비판에 대해 대답하자 - '환자들이여 암과 싸우지 마라'를 둘러싼 반론의 반론

제5장: 환자로부터 들은 38개의 질문 - 정말로 그만 뒤도 될까요?

제6장: 방사선치료도 민간요법도 전부 돈 낭비다

제7장: 암은 내버려두면 된다 - 일본은 암 치료 후진국

제8장: 내가 신뢰하는 단 2명의 의사

제9장: 암으로 죽는 것이 행복이다

<저자소개>

콘도 마코토

1948년 일본 출생. 1973년 게이오대학 의학부를 졸업 후 대학부속병원으로 들어갔다. 83년부터 게이오대학 의학부에서 방사선과 강사로 활동해오다가 1995년 '환자들이여 암과 싸우지 마라'를 출간하면서 일약 유명작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 항암제의 독성과 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콘도 선생님 정말 암을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등이 있다.

No.20150204-008

제목: 남녀 뇌 전략

저자: 멘탈리스트 DaiGo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4년 10월 18일



<내용소개>

남녀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알고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 행동한다면?!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심리학이라는 학문까지 있을 정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시중에 나와있는 심리학 책을 읽어가며 고생한 끝에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들 앞에는 더욱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녀의 서로 다른 생각방식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른 남녀의 사고 방식은 멀게는 구약성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같은 남자끼리는 쉽게 통하고 비즈니스 상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방법이 여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다가가지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맞서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썩 신통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녀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서로의 성향에 맞춰 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해부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뇌가 어느 쪽 뇌에 가까운지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이야기 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혈안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적인 성향의 뇌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치거나 편을 들어주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남녀의 알쏭달쏭한 행동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에서나 일상 생활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하고만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일상 생활 만이 아닌 비즈니스 교섭, 영업 그리고 회사 내 생활까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앞으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좋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성 간의 심리에 대

해 알고 싶은 사람이나 지금보다 더 발전된 인간관계를 맺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목표를 향한 빠른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5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남성과 여성의 뇌에 대해 알 수 있다

(경쟁과 공감 - 최고가 되고 싶은 남자와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여자 등)

제1장: 남성과 여성의 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10가지 포인트

(PC 바탕화면 - 남성은 바탕화면에 폴더가 적지만 여성은 폴더가 한 가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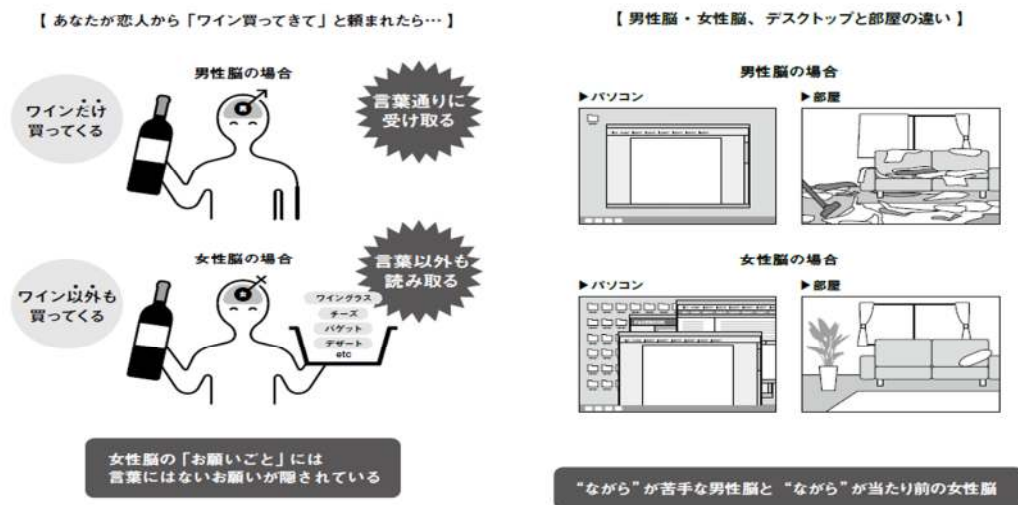
제2장: 남성과 여성의 뇌에 각각 들어맞는 전달방법

(매니지먼트의 남녀 뇌 전략 - 의욕을 고취하고 신뢰를 거머쥔다 등)

제3장: 3가지 방법으로 이성의 뇌를 몸에 익힌다

(방법 그 첫 번째 -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읽는다 등)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DaiGo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할 수 있는 '멘탈리즘'을 구사하는 일본 유일의 멘탈리스트. 현재 TV 방송 출현 및 외식업계 서비스 컨설팅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생을 바꾸는 60 초의 처방전 - 1 분간의 심리혁명', '일순간 YES 를 끌어내는 심리 전략' 등이 있다.

No.20150204-009

제목: 뒷산에 봄이 왔어요

저자: 마츠오카 타츠히데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2년 4월 1일



<내용소개>

봄이 되면 찾아오는 꽃과 나비 그리고 동물 친구들을 살펴보는 그림책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푸른 빛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삭막하기만 했던 뒷산의 풍경도 봄을 맞아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고운 색으로 꾸민 꽃을 반가워하며 날아드는 나비와 연분홍의 벚나무에 잠시 걸터앉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즐기는 작은 새들까지 모두 봄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책은 봄이 찾아온 우리 뒷산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이름까지는 아리송했던 꽃과 나무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의 생김새와 이름을 실어놓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케치한 자연의 모습을 마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낸 이 책은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지식을 한 층 더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마츠오카 타츠히데

1944 년 일본 니이카타현 출생.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한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수의
자연과학 그림책을 출판했다. 주요 작품으로 '밤이 되면' 등이 있다.

No.20150204-010

제목: 수수께끼 점술 집의 여름방학

저자: 니시무라 유리

페이지수: 206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4년 12월 9일



<내용소개>

수수께끼 점술 집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간의 유대감

사람들은 가족이란 존재가 언제나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찾는 모험을 그린 이 책은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줄 것 입니다.

주인공 코바야시 나오는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여느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겁 많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나오는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오는 아빠의 일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된 나오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새로 살게 될 아파트로 가는 도중에 나오의 아빠가 거짓말처럼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먹이던 나오에게 도움을 손길을 건네준 곳은 다름아닌 마을 어귀에 있던 커다란 점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대저택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그 점집은 신통력으로 이미 마을에서도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게 움직이는 나오, 그런 그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는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타 선배까지 두 팔 걷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점술 집에서 아빠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전개됩니다. 과연 나오는 무사히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차소개>

제1장: 국화로 둘러싸인 저택

제2장: 트램펄린

제3장: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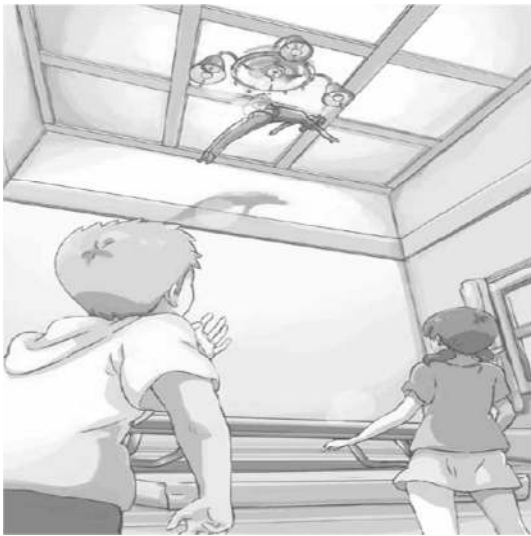
제4장: BBQ

제5장: 천둥

제6장: 미아가 된 조세핀

제7장: 아빠의 비밀

<본문이미지>



孝さんだ、
 「まだ、なつてゐるのです」
 田川さんも腹を膨らつかうてゐる。
 「お氣をひくらう」
 「いや、けつもまだほひいんだよ、さうもしなや、わかぬえだかな」
 て孝さんの事をきき前に、眼がさめる。
 「なや、まの中へハク、胸の腫をきなくや、けえんだよ、しも、その年で」
 「だつて」
 叱れなむものよと目く、孝さんが答へ、
 「めうしなう、バク、のきも、口、し、て、おき、な、増、る、べ、や、な、か……」
 「母さん」
 宙らな

<저자소개>

니시무라 유리

일본 교토 출생. 교토 교육대학 졸업 후 교토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오므라이스 가게에 어서오세요!' 등이 있다.